

고대 문명의 세계에서 엿보는 우리의 미래

신비주의적 가설에서 벗어나 과학적 근거로 복원

“늦가을의 어느날, 열여덟살의 투탕카멘은 홀로 잠자리에 들었다. 농부들의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가 한방에서 잠을 잤지만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왕비나 첩들과는 떨어진 별궁에서 생활했다. 부부간의 만남과 잠자리는 별개의 문제였다. 투탕카멘은 걸상과 책상, 발치가 사자발처럼 생긴 1회용 나무 침대 등이 드문드문 놓인 넓은 방에서 휴식을 취했다. 회칠을 한 벽에 그려진 물고기와 오리, 키 작은 풀들이 희미한 불빛 속에서 어련거리고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전, 이집트 제18왕조의 6대 파라오 투탕카멘이 죽던 날 저녁의 광경이다. 소설처럼 보이지만 이 짧은 글에는 상당량의 고고학적 지식이 담겨 있다. 파라오와 왕비가 따로 지낸다는 것, 파라오의 방에 놓인 가구와 벽 장식 등 모든 것이 발굴과 연구에 따른 추론의 결과인 것, 투탕카멘이 살해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황금파라오 투탕카멘》(보브 브라이어, 세종서적)은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탄탄한 과학적 자료를 근거로 내세운다.

연구와 증거로 복원한 고대 역사

고대 문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잊혀진’ 고대 문명의 운명이 세기말을 맞는 인류의 불안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97년 출간된 《신의 지문》(그레이엄 헨콕, 까치)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후 고대 문명을 다루는 책은 그 깊이와 넓이가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나온 책들은 초기에는 신비주의적 가설에 불과했던 사실들을 역사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학자의 치밀한 연구와 그에 따른 과학적인 증거가 빠질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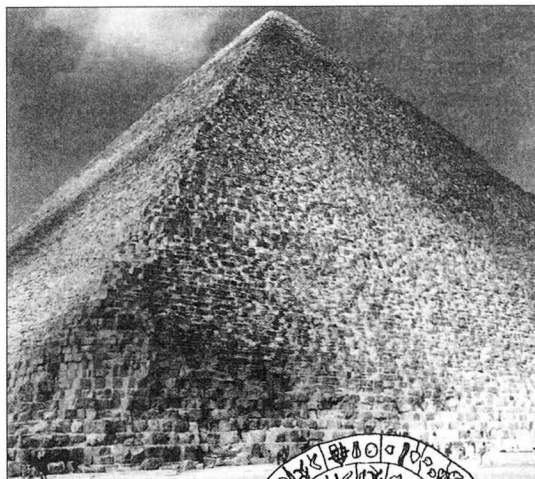
소설적인 구성을 취한 《황금파라오 투탕카멘》과 《누가 파라오를 죽였는가》(웅진)는 3000년전의 이집트로 독자를 안내한다. 이집트 전문학자이자 고병리학 전문가인 보브 브라이어가 쓴 《황금파라오 투탕카멘》은 고병리학을 통해 투탕카멘의 죽음과 그를 둘러싼 당시 정세를 재구성했다. 1922년 발굴된 투탕카멘 미라의 두개골 X레이 결과 직접적인 사인이 두개골 함몰일 수도 있다는 해리스 박사(리버풀대 해부학과)의 소견을 단서로 흥미진진한 역사 드라마가 펼쳐진다.

저자는 투탕카멘의 부인이었던 안케센아멘이 히타이트 왕에게 보낸 편지와 무덤의 벽화, 평민과 결혼한 후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안케센아멘 등을 통해, 후에 파라오로 등극한 당시 총리대신 ‘아이’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한다. 이같은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사회의 정치적·종교적 혼란을 야기한 투탕카멘의 부친 아케나텐의 병력까지 추적했다. ‘두개골 가격’의 흔적을 시작으로 치밀한 줄거리를 세웠지만 확인할 수 없는 세부사항은 상상력으로 메워 재미를 더한다.

《누가 파라오를 죽였는가》는 이집트의 타락한 다신교를 태양신이라는 유일신으로 대체하려는 투트모시스 2세의 정치변혁과 그에 저항하는 기독교 세력의 암투를 그리고 있다. 이집트를 사회적으로 안정시키려던 투트모시스의 야망은 그의 의문사로 좌절되지만 그가 죽은 지 130년만에 유일신 숭배를 국교로 삼으려는 ‘아케나톤’의 등장으로 이어진다. 이 책은 어디까지나 소설이지만 역사학 박사인 폴 C. 도허티는 기원전 1479년 투트모시스 2세의 죽음 이후 왕위 쟁탈을 위한 피비린내나는 투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소설의 바탕으로 삼았다. 이 책에 등장하는 하투스 왕비, 하투스의 연인 세넬무트 등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실존 인물. 저자는 이들이 남긴 편지와 시 등 수많은 자료를 종합해 태양신 숭배를 둘러싼 권력 투쟁의 과정을 복원한 것이다. 이집트 역사를 소재로 한 이 두권의 책은 당시의 세계가 지금과 그 원리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집트의 역사는 상형문자 기록과 피라미드를 통해 많은 자료가 남아 있지만 초고대 문명은 유물만이 유일한 자료다. 따라서 거의 모든 것이 의문으로 남아 있다.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황당무계한 상상력까지 동원해야 한다. 초고대문명의 주인은 외계인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그 중 하나. 《신이 질투한 문명들》(찰스 벌리츠, 새날)은 외계인 도래설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선사시대에 지구상에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갖가지 자료를 통해 증명한다.

31개국의 언어를 공부한 언어학자이며, 수중탐험가인 저자는 이집트 기제의 대피라미드를 측정하여 얻은 정확한 천문학적 수치



· 이집트의 기제에 있는 대피라미드(위).
· 1908년 크레타섬에서 발견된 파이스트스원반.



고대문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잊혀진’ 고대문명의 운명이 세기말을 맞는 인류의 불안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최근 나온 책들은 전문학자의 치밀한 연구와 과학적 증거로 고대 역사를 복원하고 있다.

들, 중앙 아메리카 나스카의 거대한 지상 회화, 설명이 불가능한 해저 유물, 마야·잉카 등 중남미의 고대 유적에서 확인되는 고도로 발달한 건축기술 등을 그 증거로 든다. 그리고 이런 문명을 하루아침에 없앤 것은 대재앙이라고 주장한다. 세계의 수많은 민족들이 기억하고 있는 대홍수, 지각 격변설과 불의 비 등 핵전쟁을 연상시키는 여러가지 기록을 통해 역사가 거대한 동심원의 반복이며 따라서 우리의 미래모습을 과거에서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로부터 들려오는 메시지는 “역사는 무엇을 해서는 안되는 것인가를 가르”친다.

과거가 던지는 메시지

《문명의 붕괴》(조지프 A. 테인터, 대원사) 역시 문명의 붕괴를 다루고 있지만 조금 다른 시각이다. “휘날리는 모래나 뿔뿔한 정글에 묻힌 도시. 한때는 사람이 살면서 풍요를 구가했지만 지금은 황폐한 유적”의 신비감과 경외감으로부터 냉철하게 “문명은 취약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끌어낸다. 고고학자인 저자는 한때 번영을 누렸던 서로마제국·잉카 문명·미케네 문명·인도의 하라파 문명·중국 주나라 등 20개의 고대 문명을 소재로 그 멸망 원인을 하나하나 짚어나간다.

결론은 ‘복잡성’과 ‘한계수역체감의 원리’다. 즉, 사회가 발전하면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그러한 투자가 더이상 많은 이익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점차 줄어들면서 문명이 멸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자의 결론은 일부 역사가들이 핵전쟁, 자원고갈, 경제고갈, 생태 위기에 직면한 현대사에서 로마의 황혼기와 똑같은 조짐을 읽고 있다는 사실과 연결된다. “우리의 집단적 미래”가 위태롭다는 결론이다.

또한 “사람들은 향후의 사태 전개를 가늠할 수 있는 방향감을 얻기 위해 지나간 역사를 분석”한다는 말로 최근 고대 문화 열풍에 대한 해답을 준다. 저자는 문명의 붕괴가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낮은 복잡성’이라는 “인간의 정상적 조건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본다. “이 작은 지구에서 소비를 줄이고 저개발을 지향”하는 환경론자들의 실천론이 힘을 얻는 구절이다. 그렇다고 이 책이 ‘문명의 붕괴’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유예된 기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이다. 결국 고대 문명에 대한 관심은 ‘지금’에 대한 치밀한 관심에 다름아니다. — 이현주 기자